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4월 7일 (제1248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주님을 광고하라

해외에 나가면 공항에서부터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게 있다. 바로 삼성이나 현대, LG의 광고 전광판이다. 그걸 보고 있으면 가슴이 뿌듯하다.

34년 전 즈음, 처음 해외집회를 다닐 때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대적인 광고는 없었다. 대개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소니가 주요 광고 자리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가장 좋고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에 여지없이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리는 광고탑이 되기를 바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마5:14)고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래서 주님을 알리는 광고탑이 되라 하신다.

광고하려면 먼저는 물건이 좋아야 한다. 물건은 불량이고 싸구려인데 광고만 하면 그것은 사기다. 우리가 광고하는 예수는 세상 어느 것에 비길 수 없고, 세상 어느 것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것뿐이면 광고하기에 역부족이었겠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곧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데리러 오시는 분이다. 세상은 ‘10년 AS’, ‘평생 AS’라며 광고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후까지 AS해주신다.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프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죽는 것을 두려워 말라. 다시 살아 천국에서 산다.”

이런 분을 어찌 광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물건도 광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알려야 알 것 아니겠는가.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10:14). 우리 모두는 주님의 광고 대행업체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알리는 데 주력하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지난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목사님은 코로나로 잔뜩 움츠려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꿈의 부활을 촉구하셨다.

“나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를 예수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는 꿈으로 세계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목도한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꿈이 있기에 평화통일 기도 성회를 11차에 걸쳐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로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이 예수중심교단에서, 세계 땅끝에

꼭 움츠러들고, 교회가 침체하고 있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다.

목사님은 이번 부활주일예배를 통해서도 꿈의 부활을 촉구하셨다. 목사님의 40년 목회에 항구여일하게 추구해오신 복음전파의 열정과 꿈을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염시키시려는 간절한 열망이셨다.

5월 초에 진행될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조봉환 한인회장은 처음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

의 은혜를 받고 난 후, 자신 인생의 마지막

것들이는 창대한 역사로 나타난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품었던 꿈들이 각자 깊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첫사랑을 잃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식어 오랫동안 잠자고 있을 줄 안다. 목사님은 바로 그 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 하나님을 향한 꿈과 열정이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부활절 메시지로 촉구하신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계속해서 꿈을 향해 전진하고 계신다.

올해 우리는 서울교회 성전건축의 꿈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현구 장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일예배 광경(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

수전도단 회원들에서 세계 각 분야의 인물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어가야겠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영과 혼과 육이 잘 돼서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풀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는 것이 이초석 목사의 꿈이라는 걸 제발 깨닫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죽음 다음의 세상에서 이루고픈 꿈이 있습니다.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권을 달라는 꿈입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날 바이러스 공격에 세계가 공포에 잔

막 작품으로 세부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목사님을 초청하여 세부에서 대형집회를 열겠다고 열정을 불사르고 있다. 목사님은 그런 조희장에게 세부를 접수하자며 독려하고 계신다. 반드시 필리핀 세부에 성령의 대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한다.

다음 주 토요일(4월 13일) 오후 2시에는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월드프레이즈 찬양집회가 열린다. 이미 서울 인천 청년대학부를 비롯한 교육부서에서는 각 지역으로 나가 집회홍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누군가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추진해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붙이시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비록 처음은 겨자씨만 한 작은 불꽃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많은 사람이 그 무성한 나무 그늘 아래로

로님이 제공한 소나무들을 염상섭 장로님이 제공한 땅에 신학생들과 함께 이식을 완료하였다. 이미 서울교회 성전건축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목사님이 처음 올림픽공원에 들어갈 때 가지셨던 Garden Church의 꿈이 실제로 이뤄지는 날을 꿈꾸며 확신한다.

어디 이 땅의 꿈뿐이겠는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고 왕권을 누리며 열 고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꿈이 부활해야 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9~30).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한은택 목사

춘계산상집회

- * 기간 : 2024년 4월 15(월) ~ 18일(목)
-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 문의 :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 15:1~22)



꿈은 우릴 버린 적이 없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인 배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를 좇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의 모든 꿈은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고, 더욱이 어린 비자 앞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죄책감까지 겹쳐 깊은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고기를 구워 허기를 채워주신 후에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요21:17).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요21:15).

예수님은 물고기로 육신의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고팠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죽어버린 베드로의 꿈, 잃어버린 베드로의 꿈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물을 쳐놓고 배에서 시간이나 죽이던 베드로가 아닌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명령을 목숨을 바쳐 수행했던 것입니다.

꿈을 잃은 자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꿈과 이상의 소생(蘇生)과 회복(回復)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벗은 후 다시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 부활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 신앙이 미적지근한지 압니까? 다시 사는 꿈,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꿈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제 너무 막연하다 보니 그 꿈이 사그라지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 뜨거~’ 하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처음에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개구리는 눈을 감고 따뜻한 물을 즐깁니다. 그러다 개구리는 점점 그 물이 뜨거워져도 인식하지 못해 결국 삶아져 죽고 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는 그 꿈이 점점 사라지면 결국 개구리처럼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 다시 살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꿈만 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릴 상까지 꿈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뭣 하러 자청하여 좁은 길, 인고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겠느냐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15:14).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는 것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딤후1:12)는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라고 말씀하십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되 었 으 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4:7~8)는 꿈이 있기에 만물의 찌꺼처럼 여김을 받아도 그 길을 흔쾌히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것이 꿈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3:13~14).

둘째, 우리의 꿈이 부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야 그 집에

당도하셨습니다. 오매불망 예수님만 기다리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요11:24)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세는 물론이요, 현세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답답하신 예수

님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는 거침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다”(막10:51)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부활이 찾아왔습니다.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으나 효험이 없었습니다. 열두 해가 짧은 세월은 아닌지라 이제 웬만하면 ‘이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할 테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완치’라는 꿈이 살아있었고,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마9:21)는 그녀의 꿈이 그녀를 움직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그녀의 삶에 부활이 찾아온 것입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의 기업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해봤지만 안 돼.’ 하며 꿈을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버렸기에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꿈이 부활해야 합니다. 꿈이 부활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세요. 꿈은 사치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꿈을 꿀 수 있나요?”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 역시 불가능이 없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는 말씀은 성령 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요14:12)라는 말씀 역시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외친 것입니다.

꿈을 버리지 마세요. 꿈이 없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맞아 당신의 꿈이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15:13). 할렐루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벼룩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현실의 산적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분노하거나 좌절 낙담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산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도 전염되고 불신앙도 전염되는데, 불신앙이 훨씬 더 강력하고 빠르게 전염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현실의 문제는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믿음이 없는 열 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곡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만연한 사회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꿈과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문제들만 부각시키

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며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질식할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담력과 산 소망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대학생들의 사회교양과목 강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목명이 ‘사회문제론’인데 강의 전반에 걸쳐서 사회의 문제들만 나열했습니다. 노동 문제, 청년 문제, 교육 문제, 성차별 문제, 환경문제, 기후 문제, 인권 문제 등, 그 문제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지구의 종말이 찾아올 것처럼 예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결코 지구의 종말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매몰되면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우리가 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말고, 천국 가는 날까지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현대그룹 고(故) 정주영 회장이 청년 시절, 인천 부두에서 일할 때의 일이다. 그때 숙소에 빈대가 많아 밤이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단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빈대를 피해 부룻가에 가서 잠을 잘 정도였다. 정 회장도 어떻게 하면 빈대를 피해 볼까 연구를 하다가 묘안을 짜냈다. 밥상의 네 다리를 물 대접에 담으면 빈대가 물에 빠져 절대 물지 못하리라 생각했다. 정말 며칠 동안은 빈대에 물리지 않고 꿀잠을 잤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다시 빈대가 물어댔다. 가려워서 잠을 깬 정 회장은 얼른 불을 켜더니, 아뽏싸! 빈대가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에서 자기를 향하여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정 회장에게 일생의 교훈이 되었다. 그는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지시했을 때 그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정 회장은 “빈대만도 못한 놈 같으니. 니

해봤노? 니 가봤노?” 했단다.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다윗의 형 엘리압처럼 말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엘리압이 노발대발한다. “얼른 집에 가서 양 떼나 돌봐라.”고 했다. 이는 아직 부딪쳐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실패를 시인한 것 아닌가. 무슨 일을 만나면 일단 도전하라. 길이 막혔으면 터널을 뚫으면 될 것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 될 것이다. 도전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도전하지 않고는 정상에 오를 수 없고, 도전하지 않고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지금 도전하라. 이초석 목사 저서 ‘뿌리가 썩은 나무에 물을 주지 말라’ 중에서



반복 훈련의 이유

영혼육의 복

어느 날 축구 연습을 하던 큰아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작년까지는 축구 실력이 반에서 두세 번째였지만, 지금은 일등이에요.” 비록 어린아이의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나에게서는 교훈이 되는 말이였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 일정 시간을 내어 훈련하더니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인생사, 영생사 할 것 없이 날마다 반복 훈련하는 것 이상의 왕도가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단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최정상급의 배드민턴 선수로 부상한 안세영 선수는 성공비결을 묻자 매일의 반복 훈련을 들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자신은 변함없이 훈련장에 가서 땀 흘리며 훈련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우리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약속의 말씀(요삼1:2)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 봉사 외에 지름길이 없다. 반복되는 영적 훈련을 통해 내 영혼이 강해지고, 악한 영들과 능히 맞서 승리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하던 기도와 예배의 양과 횟수를 줄

이거나 빼먹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전화 연결이 끊어지고 영적 강도인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나의 행복과 건강, 물질 등을 모두 도둑질해간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소임, 날마다의 기도와 예배는 무겁고 번쾌스러운 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여 강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날마다 반복하여 새벽 기도와 밤 기도를 드리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고 힘써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얻으셨다(눅22:44).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여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고 했다(행2:46~47).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올리는 기도와 간구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잘 나간다고 썼다 착각하여 느슨해지지 말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변함없이 주님과 교제하면 영혼이 잘될 것이고, 거기에 날마다 내 소임에 충실하면 인생과 영생 모두 윤택할 수 있다.

이국진 사모

문산교회에는 99세, 97세, 96세 성도님이 계신다. 이분들 덕분에 70대 권사님들은 새댁이 되는 교회다. 가장 만연니인 99세 집사님은 박 집사님이신데, 뽕 때마다 박꽃같이 환하게 웃으신다. 늘 단정하고 정말 고우시다.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기도원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하신다. 다음 달 초에는 문산교회 바로 앞,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신다. 건강과 더불어 장막의 복,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97세 집사님 역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신다. 지난번에는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 다들 걱정했는데, 한 주 쉬시고 주일예배에 다시 나오셨다. 오히려 교회 계단에 환자분이나 노약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리프트를 설치했는데 본인은 괜찮다며 계단으로 정정하게 걸어서 다니신다. 96세 권사님은 차로 한 시간 가까운 거리를 달려 따님과 함께 매주 예배에 나오신다. 심방 때나 여행을 갈 때마다 커피든, 식사든 배풀고 심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데, 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임종을 앞두고 계셨던 분이시다. 젊은 시

절에 예수님을 믿고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연로해지신 후로는 교회에 못 나가셨다.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서 미국에 살고 있던 따님이 어머니 임종을 지키러 한국에 왔고, 모녀가 함께 문산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지 3주 만에 어머니께서 아주 건강해지신 것이다. 할렐루야! 병원 의사 선생님이 100수도 거뜨하시겠다 했단다. 따님은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2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중심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일어나라. 손뽕 쳐라. 손들어라, 아멘 해라.” 하시는 통에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는 영혼을 살린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령 충만케 하며 뜨겁게 만든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늘의 상급과 천국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총회장 목사님의 영성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번의 예배이다. 이 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할 산상집회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마음이 무척 설렌다.

장순천 목사

:: 주님을 향하여 ::

:: 귀를 기울이세요 ::

깨진 항아리의 가치

오래전에 조금 깨어져 금이 가고 못생긴 물 항아리가 있었다. 주인은 그 항아리를 물을 길어오는 데 사용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한결같이 깨어진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항아리와 똑같이 아끼었다. 깨진 항아리는 그런 주인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내가 온전치 못하여 주인님께 폐를 끼치는 구나. 나로 인해 그 어렵게 길은 물이 모두 새어 버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어느 날 너무 미안하게 느낀 깨진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깨어져 소용 가치가 없는데요.” 주인은 그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물 항아리를 지고 집으로 향해 걸었다. 그러다 어느 길을 지나며 부드럽게 항아리에게 말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거라.” 그제야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걸어오던 길을 되돌아보았다. 길가에는 많은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싱싱하

게 피어 있었다. “주인님, 어떻게 이런 외지고 메마른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을까요?”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메마른 산길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얕으며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한 우화다.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 어느새 금이 가고 깨진다. 서로 부딪혀 이가 나가기도 한다. 그런 내 모습이 싫어 나조차 쓸모없다 치부하는데 주님은 깨진 항아리라도 소중하다 하신다. 여전히 나를 애지중지하신다. 이야기를 읽고 있자니 마치 주님께서 내게,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단다. 너는 너도 모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은 바로 네 안에 있는 나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니 힘내라고, 그러니 함께 웃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파스해졌다. 주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우리의 다른 가치를 보시는 것이다. 늘 소용 가치를 저울질하는 건 우리다. 어떤 것들은 언뜻 보기에 무용지물로 보이고 하찮

게 보이기도 하나 생각을 달리하고 보면 전혀 다른 가치를 찾게 되기도 한다.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발목이 부러진 말 모양의 도자기와 깨진 항아리를 풍물시장에서 구입하셨는데, 그 깨진 곳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 새롭게 재탄생시킨 작품이라며 보여주셨다.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가치를 창출해내는지 절감했었다. 오늘의 이야기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크다.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처럼 늘 우리의 허술함과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주인은 오래되고 낡아도, 깨어져 그 쓰임새가 부족하다 해도 우리가 마냥 귀하다.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같다. 깨진 물 항아리라도 해도 메마른 길가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영임 생도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한 자의 축복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무실 주변의 지리를 잘 아시는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 청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목사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셨고, 그 청년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사님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중년의 여성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께 존경을 가득 담아 허리 숙여 인사하고, ‘타 교단의 성도인데,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다’면서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부러 이곳까지 식사를 하러 왔는데,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면서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고, 목사님도 기쁘게 반겨주셨습니다. 잠시 후, 그 성도님은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비를 계산한 영수증을 들고 다시 찾아왔는데, 목사님께서서는 진심을 다해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길을 물었던 청년과 식사를 대접했던 성도님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알려줄 행인으로 여겼으니, 그저 목사님께 길을 안내받는 목적만을 달성했습니다. 반면, 그 성도님은 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총회장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 주의 종으로 알아보았고, 평생 한 번일지도 모를 절호의 기회에 목사님을 대접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

다. 그날 그곳에서 목사님을 마주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깜짝 이벤트였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던 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셨을지 상상하니, 한동안 여운이 남았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주하는 기회가 오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우리 교단의 지교회 목사님께서 일행과 함께 들어오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하나님께 충성된 그 목사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른 차로 달려가 식사비를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께 드리고, 몸을 낮추어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주셨지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주하는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드리고 선대하며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 선대 받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선대해 주신 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몇 차례 진급하지 못하던 직업 군인이 진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갈 수 없었던 좋은 지위에 오르는 등,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했던 그들을 또

축복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손길은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손길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 드렸습니다. 향유 옥합은 단순히 금전적으로 비싼 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여인에게 가장 큰 소원이자 꿈인 결혼의 혼수품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남편에게 부어 주고, 또 장례할 때 몸에 발라주는 의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인의 진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의 일도 전해지고 기념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막14:3~9).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는 예수종신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드리고, 기념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요13:20). 정명관 v-777@naver.com

오늘 없는 내일은 없다!

유통업계 순위가 뒤집히고 말았다.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쿠팡이 연속 흑자를 내면서 작년 매출 30조 원을 돌파하고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기존 유통업체들의 매출을 추월하여 국내 유통업계 1위를 쟁취하고 말았다. 쿠팡은 2013년 160억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 5,470억, 2018년에는 적자가 1조를 넘었고, 2022년까지 기업의 누적적자가 6조 1천억 원이었다. 그래서 모두 쿠팡이 망할 거라며 비웃었다. 그런데도 쿠팡은 수조 원을 들여 물류창고를 짓고, 미리 업자에게 물건을 구입한 후 소비자가 새벽 배송을 통해 물건을 받는 ‘로켓배송’과 멤버십에 가입하면 배송비 무료 정책으로 소비자들을 묶는 ‘록인’ 시스템을 펼친다. 이렇게 ‘쿠팡이 없던 시절을 상상치 말라’며, 쿠팡 자체가 ‘국민 E커머스 앱’이 되었다. 여기에 음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 등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유통업체가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다. 적자였지만 최선을 다한 쿠팡의 어제가 모여, 메가 히트를 한 오늘의 쿠팡이 된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설교를 통해 ‘오늘 없는 내일은 없다’고 말씀하신다. 최선을 다한 오늘이라는 벽돌이 모여 내일이라는 빌딩이 된다고 하신다. 이를 잘 실천한 기업이 쿠팡이다.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피해 도망간 외삼촌 라반 집에서 두 명의 부인을 위해 14년을 일해야 하는 사기 결혼을 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반복하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매사 양 떼를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라반의 재산보다 더 많게 하신다.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박이 양과 얼룩무늬 양을 하나님이 더 많이 탄생하게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의 삶에 충실하길 바라시며 그런 자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쿠팡 같은 흑자 미래가 나에게 꽃다발을 안고 돌아올 것이다! 오늘 없는 내일은 없다! 송헌혜 생도

